



대한해운

지난해 매출액 1조1,501억원

대한해운(대표 이진방)은 지난해 전년대비 83% 가량 증가한 1조1,50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영업이익은 1,666억원, 경상이익은 2,379억원, 당기순이익은 1,996억원의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대한해운은 장학세 회장과 이진방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1월25일 오후 1시 대한해운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 38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승인 가결했다.

이날 승인된 결산내용에 의하면, 대한해운의 작년 한해동안 매출액은 1조1,501억3,087만6,984원으로 2003년 6,279억2,781만6,702원에 비해 83.2%(5,222억306만 282원)가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1,665억9,791만원을 기록해했다.

이와함께 경상이익은 433.7%가 증가한 2,378억8,515만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003년 313억4,049만에서 지난해에는 1,995억8,640만원으로 무려 53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자산은 총 1조1,851억6,477만원으로 2003년 1조648억8,555만원에 비해 11.3% 늘어났으며, 부채는 총 8,575억1,597만원으로 2003년에 비해 9.9% 감소했다.

대한해운은 "이같은 작년실적 증가는 해운업계 호조로 인한 운임상승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라며 "동 수치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잠정치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해운은 올한해에도 매출 및 이익증대를 위해 선박화보와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 2월과 3월에 벌커선 2

척을 도입한다. 또한 2006년에도 탱커 1척과 벌커 3척 등 총 4척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동남아해운

울산-신강 서비스 개시

동남아해운(회장 양길용)이 1월26일부터 울산-중국 신강항로에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 주1항차 서비스를 개시했다.

동남아해운은 그간 스페이스 임차형식을 통하여 울산-신강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날 부터 SEA SPACE호, SKY TESURE호를 투입해 직접서비스에 나섰다.

동서비스는 주 1항 서비스로 매주 목요일 울산을 출발해 광양을 거쳐 중국 신강으로 운항하게 된다.

특히 884TEU급 SEA SPACE호는 1월25일 부산을 출항해 1월26일 울산항에 기항한 뒤 광양항을 거쳐 중국 신강으로 출항했으며, 724TEU급 SKY TESURE호는 2월1일 부산을 출발해 2월2일 울산과 광양을 거쳐 2월5일 신강에 도착했다.

STX Pan Ocean

PC선 2척 발주

STX Pan Ocean(대표 이종철)이 1월27일 4만 5,800톤급(DWT) 석유제품운반선 2척을 STX조선에 발주했다.

STX그룹은 "지난해 11월 STX팬오션을 인수해 해운-조선-조선 기자재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며 "이 중 STX조선의 장기 안정적 건조물량 확보와 STX팬오션의 선대관리 및 유지 업무를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



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57척의 자체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STX Pan Ocean은 이번 선박 발주를 시작으로 벌크선 석유제품운반선 컨테이너 LPG선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10년 세계 5대 해운사를 목표로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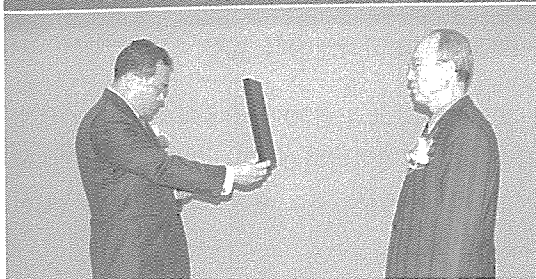
STX조선은 STX팬오션으로부터 향후 장기적, 안정적 건조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LPG선, 컨테이너선 등의 특수선 생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회사는 또 1월 현재 수주잔량 104척, 32억 달러로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썬마운틴그룹

해운물류상 제정

썬마운틴그룹(회장 임병석)은 해운물류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썬마운틴 프라이즈 (Seven Mountain Prize)'인 '초정(楚亭)학술상'을

국해운물류학회 매일경제 썬마운틴그룹 일시 : 2005. 2.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초정학술상은 조선시대 실학대가인 초정 박제가 선생의 해운유통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해운물류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상이다.

이 상은 우리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중추산업인 해운물류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학술상으로 한국해운물류학회(회장대행 윤일현 교수) 회원들의 추천과 전형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본상 및 특별상으로 각각 선정하게 된다.

전형위원회는 제1회 썬마운틴 프라이즈의 수상자로 본상에 민성규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를, 특별상엔 영국 클락슨사 전무인 Martin Stopford 박사를 선정, 2월17일 수상했다.

민성규 교수는 1973년 출간한 '해운경제학'에서 최초로 해운업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공을 인정받았고, Martin Stopford 박사는 1997년 출간한 'Maritime Economics'에서 해운업의 실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특별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연구활동비가 지원됐다.

썬마운틴그룹 임병석 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썬마운틴 프라이즈는 학술적 차원에서 해운물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외 해운물류 전문가들의 왕성한 연구, 저술활동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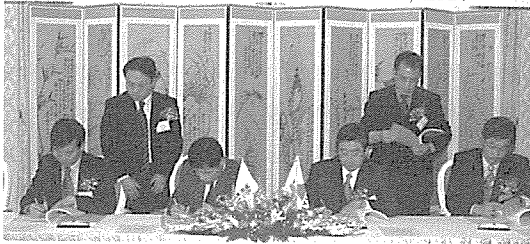
한진해운

매출액 6조2,021억원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은 지난해 매출액 6조 2,021억원에 8,198억원의 영업이익과 6,4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FINANCING FOR THREE (3) 6,500TEU CONTAINERSHIPS
FOR
HANJIN SHIPPING CO., LTD.
FEBRUARY 14, 2005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한진해운(대표 박정원, www.hanjin.com)은 2월2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지난해 지난해 매출액은 2003년보다 11.39% 증가한 6조2,021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003년 4,320억원에서 2004년에는 89.8% 증가한 8,198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의 이같은 증가는 컨테이너부문의 수송량 증대와 운임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 전략적 제휴(CKYHS ALLIANCE) 강화 등 비용구조 개선 노력, 벌크 부정기 부문의 시황 호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2003년 2,95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배이상 증가한 6,4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부채비율은 2003년말 449.9%에서 지난해에는 226.5%로 대폭 축소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20% 현금 배당(액면가 기준)을 결정, 6년 연속 현금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주주 중심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 세계적인 초유량기업으로 성장했다.

한진해운(www.hanjin.com /사장 박정원)이 서비스 향상 및 선대경쟁력 제고를 위해 6,5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발주한다.

한진해운은 2월 14일 6,500TEU급 최첨단 컨테이너선 3척 건조를 위해 금융 계약 및 건조 계약

약을 공동 주관사인 한국산업은행 및 프랑스계 소시에테 제너럴은행, 그리고 현대중공업 관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에 발주된 선박은 컨테이너 적재능력 6,622TEU(1TEU는 길이가 20피트인 컨테이너 1개)로서 7만9,000재화중량톤(DWT : Dead Weight Ton.운송능력), 길이 304미터, 폭 40미터, 엔진출력 9만3,000마력, 운항속력 26.5노트의 최신 경제선형으로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다.

금번 조달되는 금융액은 미화 1억9,845만달러로 한국산업은행과 소시에테 제너럴은행이 공동 주선으로 조달하게 되었으며, 상환기간은 12년 장기금융이다.

한진해운은 2004년에 동급의 선박 5척을 발주한 이후 연이은 선박투자로 선대의 대형화를 이루어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76척의 컨테이너선을 운항중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7,500TEU급 5척을 순차적으로 아시아-태평양노선에 투입하고, 기 발주된 6,500TEU급 선박 5척은 2006년 하반기에 차례로 주요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금번 계약을 통하여 발주된 6,500TEU급 3척은 2008년초에 인도될 예정이며, 현재 발주된 모든 선박들이 투입되면, 한진해운은 더욱 대형화되고 신형화된 선단을 갖추게 되어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 발주

현대상선(대표 노정익)이 국내 최초로 8,6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과 4700TEU 컨테이너선 5척 등 총 9척을 동시에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다.

현대상선은 12월15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2월16일 현대중공업과 선박건조계약을 맺었다.

현대상선이 이번에 발주한 8,600TEU급 컨테이너선은 최대 9,000TEU까지 적재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한국 해운산업 역사상 최초로 9,000TEU 컨테이너선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주한 8,600TEU급 컨테이너선은 △길이 339 미터, 폭 45.6 미터, 깊이 24.6 미터로 축구경기장 3개 정도의 크기이며, △주엔진은 108,920마력으로 시속 27노트(약 50Km)로 운항할 수 있는 초고속 선박이다.

4,700TEU급 선박은 △길이 294.1 미터, 폭 32.2 미터, 깊이 21.8 미터이며, △속도는 시속 25.2노트(약 46.7Km)이다.

8,600TEU 컨테이너선 1척의 건조가격은 1억 2,935만달러로 4척에 총 5억1,742만달러가 소요되며, 4,700TEU급의 1척당 건조가격은 7,865만달러로 5척에 총 3억9,325만불이 소요돼, 이들 9척의 건조선가는 총 9억1,000만달러(약 9,400억 원)에 이른다.

현대상선측은 "선박건조자금은 외부에서 장기 저리로 조달하기 때문에 회사의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박에 대한 투자는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 나가며, 선박인수가 본격화되는 2007년 이후에도 부채비율은 250% 전후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은 이 선박들을 2008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인도받아 8,600TEU급 선박은 아시아-구주항로에, 4,700TEU급은 중동항로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 2003년 말부터 지

난해까지 6,8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4,7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발주해(일부는 합작 및 장기용선) 건조중이며, 유조선과 벌크선 등도 11척을 새로 확보하거나 건조하는 등 신규선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이번 투자는 기대효과나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다. 우선, 최근 세계 해운업계가 규모의 경제효과를 노려 주력선대를 최소 7,000TEU급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미룰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고 투자 여건이 조성된 만큼, 초일류 선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투자적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호황국면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을 수 있지만, 중국 인도를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 중심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추세는 계속되는 등 투자여건이 우호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현대상선은 이번 발주로 1,000TEU급부터 8,600TEU급까지 다양한 크기의 선대를 항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측은 "지난 몇 년간 선대확장을 못해 컨테이너선 선복량이 지난 97년 세계 11위에서 지난해에는 20위까지 하락했다"며,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고, 투자 여력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투자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회사가 재도약하기 위한 필수투자로서 세계 최고의 종합해운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인도 뭍바이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승격시키고, 베트남 호치민과 중국 닝보지역에 지점을 신설한다. 또한 해외주재원을 파견



키로 하는 등 유조선 벌크선 영업과 관련된 주요 지역의 해외영업조직을 전략적으로 확대·재편한다.

현대상선은 브릭스(BRICS) 국가 중 하나인 인도의 뭍바이 지점을 오는 4월부터 현지법인으로 승격시키고, 기존의 컨테이너 영업주재원 외에 일반화물 영업과 관련한 주재원 등 2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다.

이는 중국에 이어 새로운 잠재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시장의 조기선점과 함께, 인도에서 동남아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철광석, 철재 수송 등의 신규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현대상선은 밝혔다.

홍아해운

지난해 순이익 300억원

홍아해운(회장 이윤재)은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은 5,292억원에 222억원과 303억원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3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홍아해운은 1월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경영실적을 공시했다.

동 공시 내용에 따르면 홍아해운은 작년 한해 동안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5,292억 4,150만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22억 8,785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무려 300.5%가 증가했다.

경상이익은 2003년 41억1,494만원 적자에서 2004년에는 303억200만원의 흑자로 전환됐으며, 당기순이익도 41억1,494만원 적자에서 300억2,510만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홍아해운 자산총계는 2,829억 4108만원으로 2003년 자산 2,858억 5,365만보다 1% 감소했으며 부채총액은 2,279억 1,963만원으로 2003년

부채 2,721억 2,160만원으로 16.2% 줄어 들었다.

자본금은 118억 5,672만원으로 2003년 42억 원보다 182.3% 증가했으며 자본총계는 550억 2,145만원으로 2003년 137억 3,206만원보다 300.7%가 증가해 자본총계/자본금비율은 2003년 327%에서 464.1%로 늘어났다.

한편, 홍아해운은 1월 중순부터 인도 남부 '첸나이' 행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홍아해운의 인트라아시아지역 서비스 확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한진해운의 일본-싱가포르항로에 취항하는 컨테이너선(월간 4항차)을 스페이스 차터하여 싱가포르항에서 환적하여 인도 첸나이까지 수송하는 서비스로 국내에서는 홍아해운이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서비스하는 항만은 동경항과 요코하마항으로 서비스 스케줄은 오사카항(토요일) - 동경항(일요일) - 싱가포르항(금·토요일) - 첸나이항(금요일)이다.

홍아해운은 최근 극동아시아지역과 북구지역 행 복합운송 서비스와 일본-사할린지역 서비스 등 북방서비스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신임 위원장에 박희성씨 당선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제25대 위원장에 박희성 부산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선됐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1월31일 부산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05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5대 연맹위원장 결선투표를 실시, 박희성 위원장을 25대 연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해상노련 25대 위원장 선거에는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방동식 위원장(55세)과 부산해원노

동조합 박희성 위원장이 입후보했으며 전국항포구에서 선출된 대의원 총 83명 전원이 참석해 결선투표를 벌인 결과 박희성 위원장이 43대 40으로 52%의 지지를 얻어 25대 연맹위원장에 당선됐다.

신임 해상노련 박희성 위원장은 2007년 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현 상황이 사용자와 정부뿐만 아니라 반조직적인 선원운동 세력과도 맞서 싸우며 조직을 지켜나가야 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과도기적 시대상황이라고 간주하고 앞으로 해운과 수산과 같은 편가르기를 청산하고 강력한 연맹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이에 따라 기존의 집행부가 효율적이고 강한 집행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 전직원의 자질개발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필두로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근로소득세 면세점인상, 미완의 선원법 개폐 활동, 항포구 선원복지회관 건립, 낙후된 선원복지정책 개발, 수익사업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 확보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위원장은 1977년부터 10여년간 어선원으로 일하다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1991년 부산해운노동조합을 설립해 현재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노총 중앙위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해양수산부 강무현 차관을 비롯해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장두찬 한국선주협회 회장, 해운조합 박홍진 회장, 부산영도 김형오 국회의원, 안준태 부산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여해 연맹 총회를 축하했으며 STX Pan Ocean 노동조합 김원부 위원장과 해상노련 정승택 총무국장이 해양부장관 표창을, 해상노련 김용호 수산조직본부장이 한국노총위원장 표창을, 해양부 이인수 선원조정과 행정사무관외 26명에게 감사패와 표창패가 수여됐다.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 e-Biz대상 시상

한국해운물류학회(회장대행 윤일현 대전대 교수)와 매일경제신문(회장 장대환)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 제3회 해운물류 e-Biz 대상 시상식이 2월17일 목요일 오후 6시 COEX 3층 루비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해운부문의 경우 동남아해운이 시스템에서 A, 컨텐츠 A+, 고객만족에서 B+의 평점을 얻어 대상을 수상했으며, 항만 및 지원사업 부문에서는 세방기업(A, A+, A)이, 공공 부문에서는 광양항(순천상공회의소, B+ B+ B+)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해운물류 e-Biz 대상은 우리 해운물류업계가 다가오는 e-비즈니스 시대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공모를 받지 않고, 웹사이트 평가를 통해 각 부문 5개 업체를 선정한 뒤 각 부문 5개 업체를 대상으로 cyber poll과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수상업체를 선정하였다.

제3회 해운물류 e-Biz 대상은 주식회사 아이





탱크,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쉬핑데일리가 협찬하였다. 제4회 해운물류 e-Biz대상 심사는 올 6월에 착수한다.

한국해운조합

가보고싶은섬 한글 도메인 등록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조합 홈페이지와 조합이 운영하는 섬여행 전문사이트 '가보고싶은 섬' 홈페이지의 한글 인터넷주소를 등록·완료했다.

조합은 한글 인터넷주소 서비스업체인 넷피아에 한글 인터넷주소를 등록함으로써 2005년 2월 중순부터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란에 '한국해운조합' 및 '가보고싶은섬' 을 한글로 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www.haewoon.co.kr / http://island.haewoon.co.kr) 로 이동하게 된다.

이로써 어렵고 복잡한 영문 도메인 대신 한글을 치면 바로 각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언어문제로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계층의 사이트 접근성을 높이고, 네티즌들이 보다 쉽게 조합 및 가보고 싶은섬 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조합 사업 소개 및 소득과 여가시간(주 5일제 근무 등)의 증가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섬여행 홍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과장급 인사발령

해양수산부는 2월11일 국장과 과장급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국장 전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이용

수(李龍洙)

[국장 승진]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장황수철(黃秀鐵)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영환(金英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이장훈(李長薰)

[국장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임광수(林光秀)

[과장 전보] △감사담당관 부원찬(夫元贊) △안전정책담당관 정형택 △해양방재담당관 유재만(劉載晩) △항로표지담당관 이장우(李章雨) △통상협력팀장 방태진(方泰振) △혁신기획관 최준욱(崔竣旭) △정보화담당관 한관희(韓寬熙) △해양정책과장 정홍(鄭弘) △해양개발과장 연영진(延泳鎭) △해양환경과장 손건수(孫健洙) △연안계획과장 서병규(徐炳奎) △해양환경발전팀장 최완현(崔完鉉) △선원노동과장 한홍교(韓洪敎) △항만운영과장 전재우(全宰佑) △수산정책과장 선원표(宣元杓) △유통가공과장 박종국(朴鍾國) △품질위생팀장 서재연(徐在然) △어촌어항과장 최익영(崔益榮) △어업정책과장 손재학(孫在學) △어업교섭과장 박규호(朴奎昊) △어업지도과장 정영훈(鄭永勳) △동북아물류중심국가추진기획단 어재혁(魚在赫) △동북아물류중심국가추진기획단 신연철(申連澈)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기획단 이상문(李相文) △국립수산과학원 총무과장 장병희(張炳熙)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소장 서장우(徐壯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리과장 이경일(李京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김천수(金千洙)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노병환(魯炳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김우철(金禹哲)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장 조승환(趙承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장 김규진(金圭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장 이철조(李哲朝) △군산지방해

양수산청장 박하영(朴夏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김종숙(金鍾淑)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고인철(高仁哲)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류영하(柳英夏)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 이금열(李錦烈)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 이만영(李滿寧)

[과장 파견] △세종연구소 김승호(金勝鎬)

이어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14일 국과장급 대규모 인사이동에 이어 2월 17일자로 서기관, 사무관급에 대한 대규모 전보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서기관 전보] △국제협력관실 통상협력팀 서기관 이안호 △기획관리실 혁신기획관실 서기관 윤현수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서기관 이병주 △항만국 항만정책과 시설서기관 나웅진 △항만국 항만개발과 서기관 윤석홍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서기관 이규섭

[사무관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관돌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홍종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정태성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신만철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장영철 △기획관리실 혁신기획관실 오성익, 공평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박길곤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재철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최익현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정도현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 최명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이규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손형모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권준영 △항만국 항만정책과 이진오 △항만국 민자계획과 박홍남 △항만국 기술안전과 김성환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천재홍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박장호 △해양정책국 해양보전

과 임영훈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류중빈 △해양정책국 해양환경발전팀 이승배 △항만국 항만개발과 장기욱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박승준 △수산정책국 수산경영과 김남웅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과 허만욱 △항만국 민자계획과 이병훈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윤분도 △국립해양조사원 오신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나송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편재환 △국립수산과학원 하대식 △기획관리실 동북아물류중심국가추진기획단 우영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홍승호, 김종열, 구양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 송현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윤호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 박재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윤석홍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이희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 김동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김재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김일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어명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묵호해양수산사무소장 홍순영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장봉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김석원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윤영호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김병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이홍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곽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최경욱 △항만국 항만개발과 김태년 △항만국 기술안전과 송주민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허영삼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양상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박민채 △안전관리관실 해양방재담당관실 김남중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조희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김교천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오광석 △총무과 조진춘 △해양정책국 해양환경 장성식 △국립수산과학원 남인수